



강진 김영일



곡성 김광휘



구례 박진호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 김승호



순천 김종영



여수 김석철

“내 마음 가득한 정원을 가슴에 담아보세요”

순천시, ‘대한민국 한평정원 페스티벌’ 내일 개막

순천시 주최로 아마추어 작가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50개 정원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제5회 대한민국 한평정원 페스티벌이 오는 14일 오후 2시 순천만국가정원에서 개막한다.

올해 5회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한평정원 페스티벌’은 전국 각지에서 디자인을 공모하여 심사를 통해 선정된 일반부(25팀) 및 학생부(25팀) 참여자들의 개성 있고 창의적인 정원조성으로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 전망이다.

특히, 올해 처음 신설된 ‘초청작가 정원 부문’은 영국에서 활동 중인 황혜정 정원디자이너가 이름을 올렸다.

황혜정 정원디자이너는 2016년과 2018년 영국 첼시플라워쇼에서 실버빌트 메달을 2회 수상한 바 있다.

‘남북한의 교류’라는 주제로 남북 정상의 역사적인 만남과 교류를 정원으로 표현하는 수준 높은 작품을 선보인다.

개막식은 사전 버스킹 공연과 함께 한평정원 페스티벌 행사장에서

진행되며 참여작가, 관련단체 및 기관, 시민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가정원운영과 최삼립 과장은 “한달간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펼쳐질 대한민국 한평정원 페스티벌에 있어서 각양각색의 다양한 정원을 보며 지진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힐링의 시간을 갖고 정원 문화 트렌드도 엿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태국정원에서 펼쳐질 ‘어린이 정원박람회’ 관람이 가능하며, 화관 만들기·나만의 반려식물 만들기·모스끼 화분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도 즐길 수 있다.

순천=김종영 기자

소리의 고장 낙안, 남도민요 축제 한마당

순천시, 제1회 낙안읍성 남도민요경창대회 개최



국창 송만갑, 가야금병창 시조 오대석 명인의 숨결이 깃든 소리의 고장인 순천 낙안읍성에서 오는 15일부터 ‘제1회 낙안읍성 남도민요경창대회’ 막이 오른다.

‘제1회 낙안읍성 남도민요경창대회’는 남도민요라는 단일장르로는 처음 개최되어 본 대회가 뜻깊은 만큼, 수많은 국악인들이 거쳐 갔던 판소리의 분향으로 자리매김하여

순천시의 문화예술 창달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본 대회는 15일 오전 9시 예선을 시작으로 오후 14시 본선 경연을 통해 일반부 대상을 포함한 총 14명의 수상자가 결정되며 9월 13일까지 참가신청을 받고 당일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경연부문은 일반부, 신인부, 학생부 3개 부문이며, 일반부 대상은 전라남도지사상(상금 300만원), 신인부 대상은 순천시장상(상금 100만원), 학생부 대상은 전라남도교육감상(상금 100만원)이 수여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1회 낙안읍성 남도민요경창대회로 남도민요의 저변을 확대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민요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보성군, 지역특화형 여성전문가 육성교육 마무리

전통문화공예 과정 수료식으로 피날레



보성군은 지난 7일 보성군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지역특화형 여성전문가 육성 교육 ‘전통문화공예과정’ 수료식을 가졌다. 이날 수료 인원은 24명이다.

전통문화 공예 과정은 지난 5월 개강하여 5개월 동안 100시간 교육

으로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진행됐다. 교육은 한지와 가죽 공예 수업으로 구성됐다.

교육에서 수강생들은 한지로 육각 보석함과 쌀독을 만들고 가죽에 그림을 그리고 색을 입혀 손가방과 손지갑을 만들었다. 한지와 가죽

의 기초적인 특성 이해부터 전문적인 가공까지 공예 전문가로서 갖춰야 할 소양을 교육했다. 이번 교육은 가사 및 육아로 전문 직장을 갖지 못한 여성들이 지역에서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 제공에 주안점을 두었다.

지역특화형 여성전문가 육성 교육은 지역에서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교육생들에게 기술 습득의 기회를 선사하여 농촌관광 프로그램의 다양화,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교육이다.

이 사업은 2017년 전남도일자리인센티브사업의 일환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역특화형 여성전문가 육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실시했다. 농어촌체험지도사, 농산물가공창업, 팜플레트창업, 천연염색, 전통식품푸드창업, 전통문화공예과정 등 총 6개 과정이 운영됐다.

보성=안구일 기자

장흥군, 바이오산단 투자기업 산야초마을 준공식 개최

황칠나무 가공·유통 시설공장 건립·임산물 6차산업의 선두주자로 나서

장흥군은 지난 11일 산야초마을(대표 김승연)이 장흥 바이오산단에서 황칠나무 가공·유통시설 공장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전라생물산업진흥원, 한약진흥재단, 천연연구센터, 장흥군, 세화종합건설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산야초마을은 지난 2003년 창업을 하여 2006년부터 생약초 관련 사업을 해오던 중 바이오산단 2,645㎡의 부지에 20억을 투자해

황칠나무 가공·유통시설 공장을 준공했다.

황칠은 민병통치약이라는 별명답게 항암 및 당뇨, 피부 개선, 간 기능 개선, 면역력 향상 등 우수한 효능을 입증 받으면서 비교 우위의 고부가가치 산림자원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김승연 대표는 “자체적인 원물의 관리 시스템 가동을 통해 질 좋은 원료생산과 판로 개척을 연계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이익을

높이겠다”며 “앞으로 장흥군민과 함께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대 장흥군 기업지원과장은 “산야초마을은 황칠나무 생산·가공·유통·체험을 이루르는 임산물 6차 산업의 선두주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우리 장흥군을 대표하는 향토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시 지역농산물 추출물 활용한 상품개발 나서

최종보고회 개최...내년도 백운배 음료 상품화 추진



광양시농업기술센터가 지역농산물 추출물의 상품화를 통한 지역특화 작물의 상품개발에 본격 나선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회의실에서 백운배, 곱감, 생강 등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추출물 상품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최종보고회에는 생산분야의 백운배연구회장, 유통분야의 광양시연합사업단, 백운배 주산지인 동부농협 관계자, 가공분야의 광양농부영농조합법인, 6차산업영농조합법인, 6차산업 인증업체, 백운배 일반가공업체 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따라서 용역을 수행한 (주)식품환경연구소가 정혜림 팀장이 백운배 음료, 백운배 젤리음료, 침출차 개발제품(시제품)에 대한 시식평가와 테스트가 진행됐다.

또 백운배 등 지역농산물 기능성 물질 분석과 개발된 제품에 대한 품

질검사 결과 보고도 이뤄졌다.

둘째쯤 생산을 하고 있는 부저농원 이평재 대표는 “음료 생산은 영세 가공농가에서 생산이 어려우니 광양농산물가공센터에서 스프라이트 파우치, 티백 포장기 등 설비와 HACCP 인증을 받았으면 한다”며 “지역의 가공업체와 연계해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등을 통한 백운배 음료가 상품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함께 기울여 가자”고 밝혔다.

시는 이번 최종보고회를 토대로 내년도에 백운배 음료 상품화를 목표로 농산물가공센터 내 스프라이트 파우치와 티백 포장기 설비를 갖추 계획이다.

광양=김승호 기자

광양시 메르스 사전차단에 행정력 집중

광양시보건소가 최근 서울에서 중등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비상체제를 가동하는 등 유입 방지에 적극 나

르고 있다. 시 보건소는 감염병위기 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됨에 따라 조준규 보건소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메르스 방역대책본부를 구성했다.

또 중등국가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여행객들에게 메르스 예방 행동수칙을 다음과 같이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광양=김승호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심형읍 오동3길 2(전라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무사·자문변호사)
 - 유관기관 연계로 통한 상담 무스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면역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의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맞춤형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적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